

Robert Costello씨는 국방성 생산 및 군수담당 차관보(1987년 3월 13일자)로 재직하였고, 1987년 12월 18일 획득담당 차관에 임명되었다. Costello씨는 뉴욕 New Rochelle출신으로 현재 62세이며,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에서 토목공학으로 학사 및 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Cornell대학교에서 토목공학 박사학위를 수여받았다.

그는 1944년 해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시에는 현역장교로 재소집된바 있으며, 이후 재료과학, 항공, 미사일 시험, 공학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선임 연구 및 관리직을 맡았다. 1960년 미사일 공학부문의 부서장으로 General Motors社의 Allison Division에서 일하였다. 이어 국방성의 방위연구소에서 深海工學과 음향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다시 Allison에서 主戰車프로그램을 위한 연락담당 이사로 근무하였다. 1982년에는 General Motors社에서 연간 50억불이상을 구매하는 구매담당 상무 이사가 되었다.

다음은 Costello씨가 〈Defense News〉誌의 Cheryl Pellerin記者와 가진 회견내용이다.

問 : 귀하는 최근 열세에 있는 小企業이 방산계약액의 5퍼센트를 받을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업체대표들과 회합을 가진적이 있었다. 이 목표는 가능한 것이며, 또 국방성이 사회적인 프로그램을 실행하는데 적합하다고 보는가?

答 : 우리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방산공급업체의 대표들과 회합을 가진 적이 있었다. 우리는 이에 관해 다같이 일할 필요가 있으며, 큰 진전을 보고 있다. 그들은 문제점에 대해 공동으로 제안하기 위해 필요한 방안을 동원하였으며, 항공산업협회(AIA)나 국방산업

협회(NSIA)를 통하여 일을 함으로서 우리는 그러한 노력을 몇 업체로 한정하지 않는다.

서비스사업외의 사업에 종사하는 업체를 돕기위해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업체의 대표들은 그와 같은 사업전망을 스스로 택한 것이다. 그들은 여건을 변화시켜 중소기업도 높은 가치의 사업에 참가할수 있기를 원한다. 나는 그것만이 주요한 돌파구라고 생각한다.

열세에 있는 소기업은 우리 인구중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방위산업의 적절한 수준까지 참여하도록 할 책임이 있다. 또한 收支균형을 맞추어 산업의 어느 한 부분에 보조금을 준다는지, 불필요한 상여금을 주는 식으로 조정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루어질수 있으며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고 있다.

問 : David Packard씨나 Edwards Deming씨 같은 산업분석가들은 당신이 다음 행정부에서도 획득 차관으로 계속 머무는 것이 방산조달을 위해서 유익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留任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答 : 지금 시점에서 결정을 내릴 문제는 아니다. 그런 문제는 오직 假定만 할수 있을 뿐이며, 여러가지 변수가 있다. 하지만 나는 우리가 일관성과 안정, 즉 안정된 예산과 要員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안정이 되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부서의 발전을 증대시킬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훈령과 지시를 하달하였는데, 만약 1월 21일에 본인이 이 자리에 있지 않는다면 참고해야 할 기록만이 될 것이다. 만일 있게 된다면 상황은 훨씬 수월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세운 전략들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 중 품질프로그램이나 법령개정과 같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관련되어 있다. 그런 프로그램들은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는 본인의 목표 하나하나를 심사숙고하고 있으며, 차관보들에게도 그들의 목표를 요청하였다. 변화가 있기

몇달전인 9월말까지는 그중 대부분이 작성되고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이런 목표들에는 산업경쟁력 조성, 종합품질 관리 증진, 국제적 획득전략 발전, 물품 구매시 최선의 가격과 품질을 얻을수 있도록 가능비용 (could cost)의 실시, 조달법령개정실시, 특별한 참가획득프로그램의 효과적인 관리, 새로운 기술을 무기체계에 도입하기까지의 소요기간 단축, 업체와의 정당한 관계형성, 열세인 소기업에 대한 국방성의 언질을 재확인하고 연구 및 개발, 조달과 군수부문 인력의 효율성을 증대하는 일등이 포함되어 있다.

問 : 품질부문의 권위자인 W. Edwards Deming씨는 수개월전 당신의 종합품질관리가 화려하게 시작될수 있도록 도왔다. 그 프로그램은 현재 어떻게 진척되고 있는가?

답 : 8월 18일 Frank Carlucci 국방장관은 각군 장관, 총장 및 차장, 국방성의 모든 차관보와 이러한 품질관리의 개념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인사들을 초청한 회합을 가졌다. 어떤 조직의 長도 이 품질프로그램을 잘 알아야 할 것이며, 그 회합에서는 이 프로그램의 개요를 설명하고 그들의 임무를 검토하였었다.

해군과 육군의 몇개 기관에서 종합품질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Bernard Randolph 장군 휘하의 공군체제 사령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군 군수사령부는 Alfred Hanson 장군이 각 군수창별로 품질주관을 설정하여 그 기간중 하루내지 이틀동안 시찰하고 있다. 이런 것은 현재 진척되고 있는 일중의 일부이다.

나는 최근 Ohio州 Dayton에서 공군 체제사령부의 프로그램 집행간부들에게 행한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에 대해 말하였다. 그 자리에는 7백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처럼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다.

다른 프로그램들에 비해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이것은 프로그램이라 할수 없고 우리가 사업을 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인 것이다. 이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도입과 속도에는 놀랄만하다.

問 : 현재까지 조달 스캔들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답 :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일을 처음 본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세하게 알지는 못한다. 사람들이 범을 어기는 것은 나를 대단히 당황하게 만들지만 특별한 소식은 아니다. 내가 놀란 것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법이나 절차가 그러한 범법행위를 실제 드러내지 못한 점이다. 우리가 느낀 것은 모호한 法條文을 분명히 해야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 스캔들을 직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공급처의 일부를 고쳐야만 했다. 조달심사팀과 함께 비록 모든 사람이 원하는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는 실제로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

우리는 발표되는 스캔들의 정보를 다루기 위한 조서를 준비하고 있다. 또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해 표준규범을 만들었다. 재검토 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부정에 관련된 회사의 프로그램을 회수할수 있고, 부적절하게 입수된 정보가 계약선택에 영향을 미칠수 없도록 현명한 방법으로 이런 계약을 취소하고 있다.

問 : 당신의 지금까지 업적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답 : 굉장한 것으로 본다. 나는 여전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스스로 평가하기 위해 고민한 적이 없다. 이곳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물론 그렇다. 그럼 본인이 이런 변화에 도움을 주었는가? 나는 그러기를 희망하고 또 그렇다고 믿는다.* (Defense News 1988. 9. 19)